

폭우에도 뛰어난 선수들도 질주는 계속된다



서울서 부산까지 1천317.4km를 사이클로 달리는 2007 투르드 코리아 대장정에는 악천후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지난 3일 오전 강원도 양양·평창·단양으로 이어지는 20 레이스 3구간에서 선수들이 폭우를 헤치며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위) 다음날인 4일에는 모처럼 맑게 개면서 뛰어난 아래 계속된 충북 단양과 충남 연기를 가르는 4구간 문경·상진대교를 질주하고 있다.(아래)



신지애, 지은희, 안선주

KLPGA 3인방

이번엔 국내 격돌

한국여자프로골프를 이끌고 있는 '트로이카' 신지애(19·하이마트), 안선주(20·하이마트), 지은희(21·캘러웨이)가 두 달 만에 국내 무대에서 대결을 펼친다.

이들 3인방은 6일부터 사흘동안 충북 청원군 실크리버골프장(파72·6천309야드)에서 치러지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전에서 격돌한다.

신지애·지은희·안선주

내일 KB스타투어 참가

신지애, 안선주, 지은희는 올해 열린 10차례 대회에서 9차례 우승을 나눠가지며 전화를 벗으로 나눠 호령한 삼국지를 연상케 하는 절대 강자들이다.

신지애가 4차례 우승으로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 안선주가 3승을 올리며 상금 2위, 그리고 두차례 정상을 밟은 지은희가 상금 3위에 나란히 포진했다.

대회 때마다 최종 라운드 우승 경쟁은 대부분 이들 3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7월 6일 끝난 상반기 마지막 대회 MBC투어 코리아골프 아트밸리지 오픈 이후 두달 만에 재개된 한국프로골프 하반기 첫 대회인 KB국민은행 스타투어 4차대회 역시 우승 후보는 이들 3명이다.

신지애는 상금왕 2연패를 위해 이번 대회 우승컵을 다른 선수는 몰라도 안선주나 지은희에게 내주지 못하겠다는 다짐이다.

4개 대회 연속 우승에 제동을 건 안선주에 대한 앙갚음도 겹친다. 3연승의 신비를 냈던 신지애는 코리아골프 아트밸리지오픈에서 안선주에 막혀 4연승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맞서는 안선주는 올해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안선주는 묘하게도 한번 우승하면 3개 대회를 지은희와 신지애에게 우승컵을 내주는 악순환 고리에 사로 잡혀 있다.

지은희도 우승에 대한 의욕은 두 선수 못지 않다. 4승의 신지애를 따라 잡으려면 우선 3승을 올린 안선주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하는 지은희는 이번 대회에서 신지애나 안선주에게 우승을 양보하면 추격이 부담스러워진다.

올해 호주, 미국, 유럽 등에서 벌인 해외대회에서도 박빙의 승부속에 상위권 입상 소식을 전해온 '3인방'의 대결은 이 대회를 신호탄으로 삼아 앞으로 10개 대회 연속 이어진다.

'트로이카' 전성기에 들러리 신세가 된 최나연(20·SK텔레콤), 박희영(20·이수건설)과 문현희(24·월라코리아), 홍란(21·이수건설) 등도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남지 않겠다며 출시표를 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형택 '세계 4위 벽' 실감

다비덴코에 0-3 완패

US오픈테니스 16강전



미켈슨 우승...페덱스컵 포인트 1위

PGA 도이체방크챔피언십 최종

언제나 타이거 우즈(미국)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던 필 미켈슨(미국)이 최종 라운드 맞대결에서 모처럼 웃었다.

미켈슨은 4일(한국시간)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파71·7천207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 번째 대회 도이체방크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컵을 차지했다.

미켈슨은 시즌 세번째 우승과 함께 1천만 달러의 1위 상금이 걸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포인트 순위 1위로 뛰어 올랐다.

PGA 투어 32번째 우승으로 우승 상금 126만 달러를 받은 미켈슨은 상금랭킹이 2위(568만5천558달러)로 올랐고 세계랭킹 역시 짐 퓨릭(미국)을 밀어내고 2위를 되찾았다.

그러나 시즌 중반 손목 부상 탓에 찾아온

■ PGA 투어 페덱스컵 포인트 순위

(4일현재)	
1	필 미켈슨
2	스티브 스트리커
3	타이거 우즈
4	최경주
5	로리 사우터니
6	비제이 싱
7	짐 퓨릭
8	조프 오길비
9	애덤 스콧
10	잭 존슨
39	앤서니 김
90	위창수
98	나상욱

슬럼프를 벗어났다는 사실보다 미켈슨에게 더 기뻤던 것은 우즈와 18개월 만의 맞대결에서 거둔 우승이었다.

4타를 줄인 우즈는 14언더파 270타로 2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포인트 순위 3위로 올라서는데 만족해야 했다.

PGA 4개 대회 시리즈...우승 상금 무려 95억원

■ 페덱스컵 어떤 대회?

올해 신설된 페덱스컵은 우승상금 1천만달러(약 95억원)가 걸린 미국 PGA 투어의 플레이오프 4개 대회 시리즈다.

바클레이스(8월 24~27일·종료)·도이체방크(9월 1~4일·종료)·BMW(7~10일)·투어 챔피언십(14~17일) 시리즈와 올 시즌 기본 성적을 합산, 성적 포인트가 가장 높은 선수가 1천만달러를 받

는다. 페덱스컵 첫대회에는 올 시즌 PGA대회별 성적에 따른 포인트 상위 144명만이 출전했으며, 이어 득점 순위에 따라 120명→70명→30명으로 점차 줄여 나간다.

4개 대회(총 상금 각각 700만 달러) 종합우승의 보너스는 1000만 달러, 2위는 300만 달러로 차액이 700만 달러(66억5천280만원)에 달한다.

/박진표기자 lucky@



KIA 장성호 10년연속 100안타

'스나이퍼' 장성호(30·KIA)가 프로야구 사상 세번째로 10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다.

장성호는 4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07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원정경기에서 좌익수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0-5로 뒤진 2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이승학(28)의 3구째를 밀어쳐 중견수 키를 훌쩍 넘기는 2루타를 뽑아냈다.

이 기록은 프로야구 사상 세번째로 이전에는 양준혁(38·삼성)이 1993~2002년 10년 연속 100안타를 넘겨 치며 1호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까지 15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해영(37·LG)이 1995~2004년 10년간 100안타를 넘겨 쳤다.